

↑ 코스피	2557.08	↑ 코스닥	852.04
	(+19.29)		(+10.32)
↓ 금리 (연-0.01%)	3.321	↓ 환율 (원-달러)	1318.10
	(-0.019)		(-8.60)



반도체 패권경쟁 격화... 美-中 싸움에 韓 새우등 위기

‘G7 공동성명’ 보복나선 中
美 기업 마이크론에 첫 제재
“안보영향 우려, 구매 중지”

美 정부, 동맹국들과 대응 입장
韓, 무역분쟁 확대 가능성 우려

중국이 미국 반도체 규제에 맞불을
놓으며 갈등을 키우는 모습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도 썬잡이 복잡해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안
보심사관공실(CAC)은 미국 마이크론
제품에 심각한 네트워크 보안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다.

CAC는 국가인터넷정보관공실 산하
단체로, 중국에서 판매 중인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사이버 안보 심사를 통해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제품 구매를 중지하라고 밝혔다.

CAC는 지난달 31일 정보시설 안전
을 위해 마이크론 제품을 대상으로 안
보 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중국이 외국
반도체 회사에 사이버 안보 심사를 한
것은 처음이다.

마이크론은 중국 정부와 대화를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외신에 따르면 마
이크론도 CAC 통지를 받았으면서도
중국 정부와 계속 논의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미중 갈등은 더 악화될 조짐이다. 앞
서 중국은 ‘반간첩법’ 개정과 함께 민츠
그룹 베이징 사무소와 베인앤드컴퍼니
상하이 사무소, 컨설팅업체 캡비전을



손 잡는 尹 대통령과 EU 지도부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사를 미셸 EU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스1

수색하는 등 현지 미국 기업에 대한 압
박을 강화해왔다. 이번 발표도 G7이 중
국 견제를 강화하는 공동 성명을 채택
한 다음날 내놓은 것이라 ‘맞불’ 전략이
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미국 정부도 즉각 대응했다. 현지 매
체에 따르면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동맹국들과 중국에 대응하겠다는 입장
을 밝혔다.

최근 이어졌던 미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들며 중국이 주장하는 투명환

규제 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불뚱이 우려된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국내 반도체 업
계에 ‘반사이익’을 누리지 말라는 뜻을
전달했다. 중국이 마이크론 제품을 수
입하지 않는다고 해도 부족분을 추가로
공급하지 말라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 조
치가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경고라고
보기도 한다. 현지 마이크론 점유율이
높지 않아서 제재 효과도 적고 반사이

익도 크지않다는 것.
반도체 업계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만큼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지
만, 미중무역분쟁이 더 확대될 가능성
에는 불안감을 숨기지 못하는 분위기
다. 글로벌 시장이 불안정하면 당장 판
매뿐 아니라 장기적 전략을 수립하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중국이 현지 업체 점유율을 늘리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 무
역 규제에 애플 등 업체들이 중국 반도

체 도입을 포기한 상황, 마이크론 대신
현지 메모리 업체의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추측이다.

실제로 중국 메모리 업체는 미중 분
쟁 속에서도 경쟁력을 크게 확대해왔
다. YMTC가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로
200년대 낸드플래시 개발에 성공한 바
있으며, 중국 창신메모리도 미국에서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다시
10나노대 D램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업황부진 석화업계, 미래 먹거리로 ‘반도체 소재’ 키운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매년 급성장
LG화학, 종합전지 소재 회사 육성
롯데, 동박 등 생산능력 확대 추진



동박 제품 모습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석유화학업계가 업황 부진을 겪으면
서도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생산 확
대로 수익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기 시황에 영향을 크게 받는
전통적인 석유화학 사업에 치중하기보
다, 미래 소재·배터리 소재 등 고부가가
치 제품군 확보를 통해 개발과 생산 확
대로 역량 강화하는 모습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전기차배터리와
관련한 소재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설
정하는 시류가 강해졌다. 좀처럼 다운
사이클을 극복하지 못하는 전통적인 석
유화학시장에서 눈을 돌려 성장하고 있

는 전기차 시장 성장세 올라타려는 분
위이다. 배터리 소재가 화학사의 메인
사업은 아니지만 향후 전기차 시장 성
장 전망이 밝아 화학사들의 미래 전략
중 하나로 꼽힌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
면, 올해 1분기 전 세계 전기차 인도량
은 약 270만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늘었으며, 2035년 전기차 예상 판

매 대수를 약 800만대로 보고 있다. 게
다가 이 같은 성장 속도는 해를 거듭할
수록 빨라질 전망이다. 주요 배터리 소
재 중 동박 시장 규모는 2018년 1조
5000억 원에서 2025년 10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정부도 ‘미래 수출 주력 품목’에
전기차와 양극재 등 30대 수출 유망품
목을 선정할 정도로 수출 지원도 하는
터라 기업으로서의 개발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LG화학은 배터리 소재
사업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하고 LG화
학을 ‘글로벌 톱 종합 전지 소재 회사’
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그만큼 배터리 소재 사업의 성장성 높
다는 의미다.

LG화학은 올해 스페셜티를 키우기
위한 별도 조직 넥솔루션(Nexolutio
n)과 서스테이너빌리티(Sustainabil
ity) 사업부를 꾸리며 전문성을 강화한
다. 서스테이너빌리티는 POE(폴리올
레핀 엘라스토퍼)와 CNT(탄소나노튜브)
를 담당한다. POE는 태양전지를 보
호하고 전력손실을 최소화하는 용도로
쓰인다. CNT는 열전도율이 구리·다이
아몬드와 동일하고 강도는 철강의 100
배에 달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배터리의 필수 소재로 꼽히는
‘하이켈 양극재’의 생산 능력도 확대
한다. LG화학은 올해 12만톤의 규모의
생산 능력을 2028년 47만톤까지 확대하
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LG화학 측은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 외에도 신규

글로벌 고객사 비중도 확대해 40% 수
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치를 발표
했다.

이러한 전략을 세우는 이유는 이미 1
분기에 첨단소재부분의 가능성이 영업
이익으로도 증명됐기 때문이다. LG화
학석유화학부문은 영업손실 508억원을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첨단소재부문이
영업이익 207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롯데케미칼도 롯데에너지머티리얼
즈를 통해 동박 생산 능력을 강화한다.
연간 동박 생산능력을 지난해 말 6만 톤
에서 2027년 22만5000톤까지 확대하겠
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경훈 롯데케미
칼 전지소재사업단 사업전략담당(상
무)은 지난 11일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
스콜에서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인수
후에 이차전지 소재 사업 매출은 2030
년에 보수적으로 봐도 7조원은 가능하
다고 본다”고 기대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야권 “이승만, 불법계엄 내란죄”... 박
민식 “4·19 주역 ‘李’ 평가해야”
▲ 윤재옥 “전세사기 특별법, 국민 납득
할 최선의 지원 조치” /사진 뉴스1

▲ 김종민, 개발 청년 정치인 공격에 “정
치폭력 선 그어야”
▲ 김건희 여사 ‘영부인 외교’... 이달만
10여개 일정 소화



▲ 박진 “尹, 한일 정상회담서 후쿠시마
오염수 입장 확실히 말해” /사진 뉴스1
▲ “대화 실종, 국민이 정치 걱정”... 원로
들에게 혼쭐난 여야 대표